

이재명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지급”

문화예술 공약 발표

예산 2.5%로 두배 확대
5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K-콘텐츠 프로젝트 가동



이재명

해는 불가능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며 “일부 언론이나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지급 외에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넓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산 비중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여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기관 채용에는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 현장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지금까지 고통

받는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사례처럼 지원이 간섭이 될 우려에 대해서는 “판을 깔아주고 예산의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간 중심의 심의위를 구성해 예술인의 참여폭을 넓히는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정부와 관료의 의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 밸리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공공·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200개 중소기업에 투자,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확충, 웹툰 식별 체계 도입 등 국제표준 선도, 콘텐츠 관련

대기업 독과점 시정 및 저작권 침해 근절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K-콘텐츠의 지속된 확산을 위해 신남방(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신북방(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각각의 루트에서 문화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기능 강화, 한류 페스티벌 및 K-콘텐츠 마케팅,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의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는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이나 예술인 멘토를 지원하고, 국가가 청년을 마을 예술가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의 생애주기별 확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작은 미술관 건립 등을 공약했다. /연합뉴스



‘야자 TV토론 중단하라!’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7천명’ 턱밑... 위중증 488명

27일만에 다시 6천명대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20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0명대 중반까지 늘었다.

반면 지난해 말까지 1,000명을 웃돌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이날 2개월여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03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71만 2,5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805명보다 798명 늘면서 지난해 12월 24일(6,233명) 이후 27일만에 6,000명대를 나타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3차 접종 확대의 영향으로 3,000~4,000명대를 유지했

던 하루 확진자는 전날 5,000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이날 6,000명대로 올라가면서 오미크론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21일째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에 이르고, 오미크론의 국내 점유율도 50%를 넘어서면서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서면 즉시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 ‘대응단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응단계에서는 동네 병원·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 및 진료를 시행하게 되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층 먼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또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오미크론 우세종 사실...총력 대응”

“국내 유입 2년 정보 알려야”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데 대해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보고받은 뒤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03명이라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3차 접종 확대의 영향으로 3천~4천명대를 유지했던 하루 확진자는 전날 5천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이날 6천명대로 올라가면서 오미크론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도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위중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함께 힘을 모으면 오미크론 파고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2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협조와 헌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국민과 의료진에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다자대결’ 이 34% vs 윤 33% 접전

야권 단일화 안철수 선호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가 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4%, 윤 후보는 3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 10~12일 진행한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는 3%포인트 떨어졌고, 윤 후보는 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도 9%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좁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로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로 변화가 없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는 17%로 전주와 같았다.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는 46%가 동의했으며, 42%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단일화 후보로는 안철수(40%) 후보를

윤석열(34%) 후보보다 선호했지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윤 후보 52%, 안 후보 37%로 나타났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이 후보를, 34%가 윤 후보를 꼽았다. 두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로 전주의 21%포인트 대비 많이 감소했다.

응답자의 40%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했지만, 47%는 정권 심판을 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 50%로 긍정적(45%)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2%, 국민의당 7%, 정의당 4%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6.5%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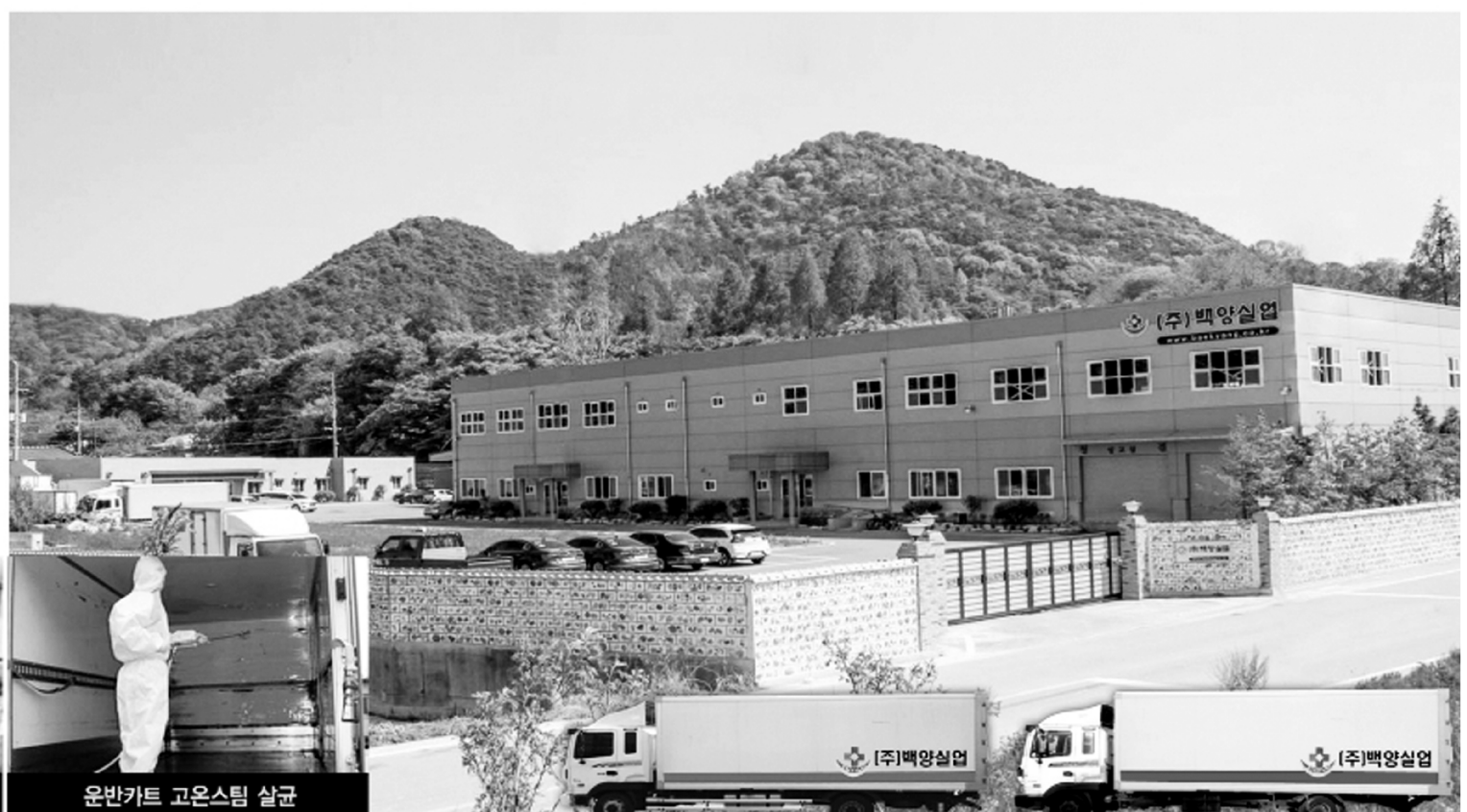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